

는 것이다.

그러나 이 上樑記에 말하는 壬寅年이 어느 壬寅에 該當하는지는 갑자기 알아내기 어렵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이 書院 創立當時의 壬寅歲가 아님은 아직 있을 수도 없는 院長의 이름이 보이는 데서 곧 짐작이 간다. 그것은 또한 같이 發見된 白紙의 上樑文中에 「明廟親題已揭作人之坏樸」이라는 句節이 있어서 이 講堂이 明宗 以後의 建立임이 더 疑心할 餘地도 없는 바이지만 그 以上年代를 明白히 指摘할 수 없는 것을 遺憾스럽게 생각한다. 筆者의 생각으로서는 中宗 三七年 다음에 돌아오는 壬寅年(宣祖三五年 一六〇二)은 倭亂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미 各地에서 文廟에 對한 再建도 이룩되어 있었으므로 紹修書院도 이 때에 새로 造營이 있었다고 보아서 觀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보다 二年 앞서 再建된 慶州文廟의 大成殿과 그 貢包의 細部 形式을 比較해 보면 簷遮의 形態에서 恰似한 點이 있으므로 이러한 推測은 대개 틀림 없는 것으로 믿어 진다. 그러나 이 上樑記의 年代를 確實히 하는데 가장 손쉬운 方法은 當時의 院長이 우리나라에서는 稀姓인 奉化 琴氏의 한 사람임으로 그 家乘을 調査해 보면 쉽사리 밝혀지지 않을까 期待하고 있다.

玄風 石水庫

秦 弘 燮

慶北 達城郡 玄風邑에 石水庫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現地를 調査할 機會가 없다가 今年 三月에 이를 調査한 바 있어 이에 紹介한다.

玄風國民學校 東쪽 언덕 南端에 南北으로 길게 構築되었으며 入口는 北쪽에 있고 南쪽이 알아서 그리 빠진 물은 邑內 북관을 흐르고 있는 龜川으로 빠지게 된다. 封土는 頽落이甚하고 特別 南端은 天井石이 露出되어 一部 盜難당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入口는 大破되어 形態를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內部에는 轉落된 石材와 흙이 차 있어 底面의 施設을 알 수 없다. 虹霓는 四個며 그 사이에 長大石數枚를 걸쳐서 天井을 삼고 二處에 換氣孔이 있다.

壁은 雜石을 利用하였으며 大體의 構造는 慶北道內에 있는 다른 水庫와 같다.

特別 天井을 構成한 長大石中에 唐草文과 火炎文이 彫刻된 光背石 破片이 一枚 끼여 있다. 中央에는 정자리가 있어 돌로 切斷하려다만 자리가 남아 있다. 이 斷片은 아래 위가 切斷된 것은 하였으나 彫刻은 優秀한 것이다. 이 水庫東方 산 기슭에는 等身大의 石佛이 있다고 하니 必是 그 近處에 寺院이 있었을 것이고 이 光背

長一〇・四m 廣四・二m 高二・六m

